



일본,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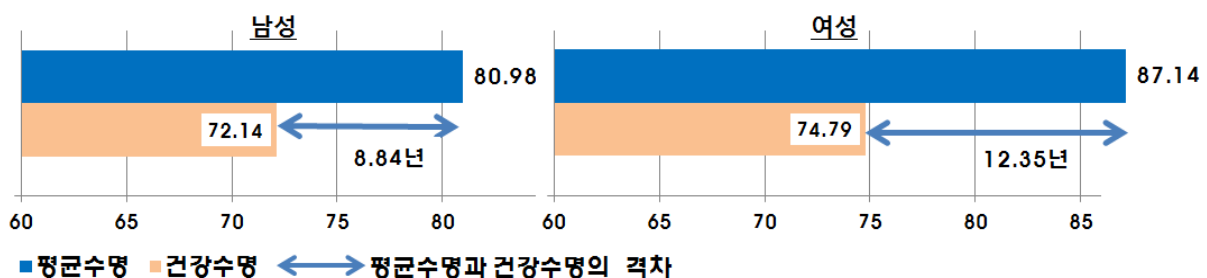
이상우 수석연구원

일본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즉,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2001년 이후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는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더 길어진 상태에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적 건강수명 개선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와 함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후생노동성¹⁾은 2016년 간이생명표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2013년보다 각각 0.8년, 0.5년 증가한 81세, 87.1세가 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함

- 2016년 건강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4.8세, 72.1세로 잠정 집계되어 아베정부가 2015년에 목표로 한 2010~2020년까지 10년간 건강수명 1년 이상 연장²⁾이 조기에 실현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건강수명 목표를 75세로 정하고 있으며³⁾ 현재 건강수명은 73.6세임⁴⁾
- 이에 따라 2016년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8.84년, 12.35년임

〈그림 1〉 일본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비교



1) 厚生労働省(2017. 7. 27), 2016 簡易生命表

2) 内閣部(2015. 7. 16), 日本再興戦略 中短期工程表

3) 보건복지부(2011. 7. 20),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4)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2017. 10. 10),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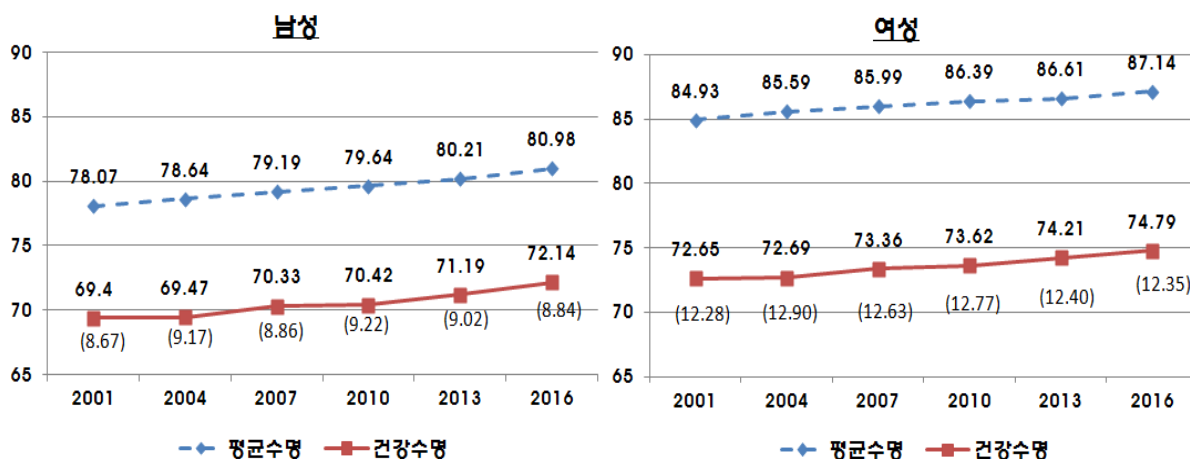
■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수명을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생활하는 기간으로 정의함

- 따라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기간의 합산(이하, 건강하지 못한 기간)임
- 일본은 1974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건강수명을 산출하였으며, 현재는 후생노동성이 전국민 건강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⁵⁾ 결과와 간이생명표 등을 기초로 건강수명을 산출함

■ 일본의 연도별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거와 유사한 수준임(그림 2) 참조)

- 2016년 평균수명은 2001년 대비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1년, 2.21년 증가하였으며, 건강수명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2.74년, 2.14년 증가하였음
- 반면, 2016년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1년 대비 남성과 여성 각각 0.17년, 0.07년 증가하여 2001년보다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일본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연도별 추이



주: ()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자료: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후생노동성, 단, 2016년 건강수명은 NLI Research Institute

■ 2016년과 다른 연도와 비교한 결과 <표 1>과 같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개선된 반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건강하지 못한 기간)는 개선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5) 후생노동성이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생활기초조사(71만 명 대상)에서 건강상 문제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건강표를 제시하여 설문조사함

- 2016년과 2013년 비교 시 남성의 경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각각 0.77년, 0.95년 증가하였으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즉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0.18년 개선되는 데 불과하였음
- 특히, 2010년과 2007년 비교 시 남성의 경우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각각 0.45년, 0.09년 증가하였으나 건강하지 못한 기간은 오히려 0.36년 증가하였음

〈표 1〉 일본의 평균수명, 건강수명,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직전조사 대비 증가값

(단위: 년)

구분	남성			여성		
	평균수명	건강수명	격차	평균수명	건강수명	격차
2001~2004	0.57	0.07	0.50	0.66	0.04	0.62
2004~2007	0.55	0.86	-0.31	0.40	0.67	-0.27
2007~2010	0.45	0.09	0.36	0.40	0.26	0.14
2010~2013	0.57	0.77	-0.20	0.22	0.59	-0.37
2013~2016	0.77	0.95	-0.18	0.53	0.58	-0.05

주: 1)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조사는 3년 단위로 실시함

2) 격차는 건강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

- 일본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더 길어진 상태에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질적 건강수명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수명 지표와 함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kiri**